틀의미론(Frame Semantics)에 입각한 일본어 'Ingestion' 동사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Culture-Image-Frame)' 연구*

이준서(李埈瑞)**
jslee@sungkyul.edu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틀의미론과 프레임넷
2.1. 틀의미론
2.2. 프레임넷 프로젝트
Ⅲ. 프레임의 다국어 적용에의 한계
Ⅳ. 문화이미지프레임
4.1.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4.2. Ingestion 동사의 문화이미지프레임
Ⅴ. 마치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the culture specific images(i.e. 'Cultural-Image-Frame') for the Ingestion verb frame across three languages. By using the meta-search engine created by Lee & Han(2011), we already have constructed a Japanese-Korean image corpus database(currently, 14,182 words entry). The cultural image frames which will be selected from this database based on each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s in this paper will be very useful data especially for the empirical semantic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better way of understanding the intimate rel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by presenting the cultural distinction visually. This research also contributes to frame semantics(FrameNet Project- https://framenet.icsi.berkeley.edu/fndrupal/-) that require a good understanding of standard cultural frameworks in which word's meanings and their usages are embedded. By using images, we can identify culture specific image schemas of a word and ascertain that word's meanings are relativized to scenes.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성결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연구과제임.
** 성결대 일어일문학과 부교수(일본어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Key Words : 프레임, 프레임넷, 틀의미론, 문화이미지프레임, 백과사전적지식, (필수 & 임의) 어휘요소,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frame, FrameNet, frame semantics, cultural-image-frame, encyclopedic knowledge, (core & non-core)Lexical Element, image-database

Ⅰ. 들어가며

일찍이 포르투칼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1532-1597)는 유럽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해 내며 특히 식문화에 있어서 당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일본인의 젓가락의 사용이 매우 특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한(2011)의 메타검색엔진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관련 이미지 검색에서도 식문화와 관련한 일본 특유의 문화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어 현대일본어에 있어서도 당시의 식문화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언어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언어를 통한 경험의 표출 및 창출 활동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그 언어공동체의 공통 문화가 된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언어공동체가 다르면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해당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언어학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포괄적인 경험을 반영하려는 '경험적 의미론(empirical semantics)'에 바탕을 두고 있는 틀의미론(frame semantics)은 인간의 언어와 경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을 매우 중시한다. 이러한 틀의미론의 기본 틀에 입각하면 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투영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틀의미론의 견해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식섭취(Ingestion) 식문화 모습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일본 특유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cultural-image- frame)'을 특정(特定-identificaton-)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틀의미론과 프레임넷

2.1. 틀의미론

경험주의적 의미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틀의미론(frame semantics)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언어와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 의미론(formal semantics)과는 크게 차별된다.

> Frame semantics comes out of traditons of empirical semantics rather than formal semantics. It is most akin to ethnographic semantics, the work of the anthropologist who moves into an alien culture and asks such questions as, 'What categories of experience are encoded by the members of this speech community through the linguistic choices that they make when they talk?' A frame semantics outlook is not(or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work and results in formal semantics; but is differs importantly from formal semantics in emphasizing the continuities, rather than the discontinuities, between language and experience.[1)]

이러한 틀의미론에 기반한 프레임넷(FrameNet) 프로젝트가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에는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까지 크게 다국어 확장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어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인간의 총체적 경험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인지적 지식배경 기반틀(conceptual structure)', 즉 의미 프레임(semantic frame)을 구축한다.

> By the term 'frame' I have in mind any system of concepts related in such a way that to understand any one of them you have to understand the whole structure in which it fits; when one of the things in such a structure is introduced into a text, or into a conversation, all of the others are automatically made available. I intend the word 'frame' as used here to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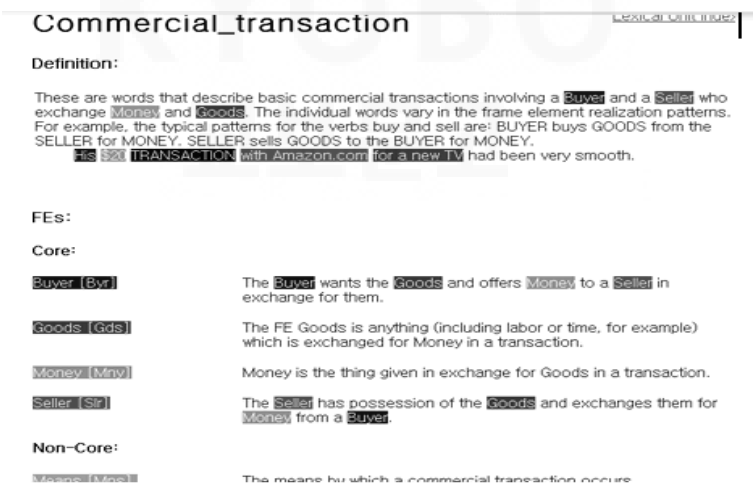
1) Fillmore C(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1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a general cover term for the set of concepts variously known in the literature 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s 'schema', 'script', 'scenario', 'ideational scaffolding', 'cognitive model', or 'folk theory'[2)]

틀의미론에서 의미하는 프레임은 구체적인 어떤 단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연관 백과사전적 경험 지식틀의 하나로, 어떤 단어의 사용으로 이러한 프레임이 형성되며 이와 관련된 어휘들이 자동적으로 상기(想起)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어떤 단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되는 지식 체계 전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연관 어휘는 동일 프레임의 동류 어휘 집합(lexical set)이 되는 것이다. 프레임넷 프로젝트는 이렇게 구축된 프레임을 바탕으로 실제 자연어(natural languare)에 의미 주석을 붙이고, 틀의미론의 기술 방법에 따라 각 어휘의 틀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작업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자주 인용되는 상거래 프레임(Commercial Transaction Frame)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ommercial_transaction

Definition:

These are words that describe basic commercial transactions involving a Buyer and a Seller who exchange Money and Goods. The individual words vary in the frame element realization patterns. For example, the typical patterns for the verbs buy and sell are: BUYER buys GOODS from the SELLER for MONEY. SELLER sells GOODS to the BUYER for MONEY.

His [20] TRANSACTION with Amazon.com for a new TV had been very smooth.

FEs:

Core:

Buyer [Byr]	The Buyer wants the Goods and offers Money to a Seller in exchange for them.
Goods [Gds]	The FE Goods is anything (including labor or time, for example) which is exchanged for Money in a transaction.
Money [Mny]	Money is the thing given in exchange for Goods in a transaction.
Seller [Slr]	The Seller has possession of the Goods and exchanges them for Money from a Buyer.

Non-Core:

그림 1 FrameNet 'Commerce_transaction'

https://framenet.icsi.berkeley.edu(검색일: 2013. 6. 1)

2) Ibid., p. 1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거래 프레임에 속하는 동사들 중, 예를 들어 sell, buy, cost, spend, pay, charge 등의 어휘들은 모두 '상거래'라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되는 어휘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거래'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 경험틀에 속하는 것이며, 이들 각각의 단어들은 인간의 상거래 활동의 다양한 행위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 이에 이들은 모두 '상거래'라는 하나의 프레임 속의 동류 어휘 집합이 되는 것이다.

> The basic assumption of Frame Semantics as it applies to the description of lexical meanings is that each word (in a given meaning) evokes a particular frame and possibly profiles some element or aspect of that frame. An "evoked" frame is the structure of knowledge required for the understanding of a given lexical or phrasal item; a "profiled" entity is the component of a frame that integrates directly into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surrounding text of sentence. The frames in question can be simple-small static scenes or states of affairs, simple patterns of contrast, relations between entities and the roles they serve, or possibly quite complex event types-which we can call scenarios-that prvide the background for words that profile one or more of their phases or participants.[3)]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프레임은 관련 백과사전적 경험 지식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의해서 구현된다. 즉 어떤 문장(sentence)이나 대화(conversation) 속의 한 단어가 특정 프레임을 부각시키고(evoking), 동시에 프레임의 구성요소가 윤곽을 드러낸다(profiling)는 것이다. 이 때, 부각된 프레임은 곧 해당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구조가 되고, 윤곽이 드러난 요소들은 주변 텍스트나 문장의 의미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프레임의 구성요소(Frame Element, FE)가 되는 것이다. '상거래' 틀에 속한 sell, buy, pay, charge, spend, cost 등의 어휘를 예로 살펴보면, 이들의 주요 프레임 요소는

3) Fillmore C, Charles Wooters, Collin F. Baker(2001) Building a Large Lexical Databank Which Provides Deep Semantics, Proceedings of the Pacific Asian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 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BUYER, SELLER, GOODS, MONEY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중에서 윤곽 부여되어 드러나는 것은 각각 sell의 경우 SELLER와 GOODS, buy의 경우 BUYER와 GOODS, pay의 경우 BUYER와 MONEY, charge의 경우 BUYER와 SELLER가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배경이 된다. 이렇게 동일한 프레임 내에서 전경(前景)이 되는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 동일 프레임 속에서 각 어휘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4)]

2.2. 프레임넷 프로젝트

틀의미론에 기반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International Computer Science Institute(ICSI)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레임넷(FrameNet)프로젝트는 2. 1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백과사전적 경험 지식에 기반하여 영어의 어휘 데이터베이스(Lexical Database)를 구축하려는 방대한 작업으로, 현대 영어 말뭉치(corpus)를 대상으로 의미 주석을 붙이는 것이다. 프레임넷에서 사용하는 코퍼스는 1억 개 이상의 영국영어 코퍼스인 British National Corpus(http://info.ox.ac.uk/bnc/)와 미국영어 코퍼스인 Linguistic Data Consortium의 North American Newswire corpora(http://www.cs.vassar.edu/~ide/anc/)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코퍼스를 이용하여 틀의미론의 이론적 기반에 입각해 실제 영어 문장에 의미 주석을 붙이고, 틀의미론의 기술 방법에 따라 영어 어휘의 틀 구조를 분석해 나가면서 어휘항목 각각의 특질과 어휘항목 간의 관계, 더 나아가 프레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남경완・이동혁(2004)「틀의미론으로 분석한 '사다'와 '팔다'의 의미 분절 양상」『언어』29-1, 한국언어학회, pp. 7-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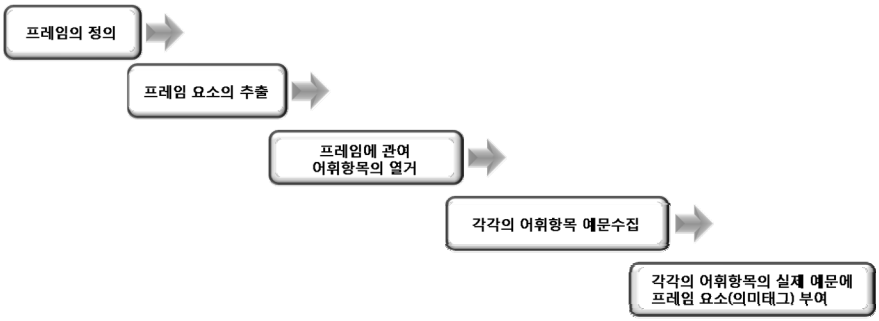


그림 2 프레임넷 프로젝트 작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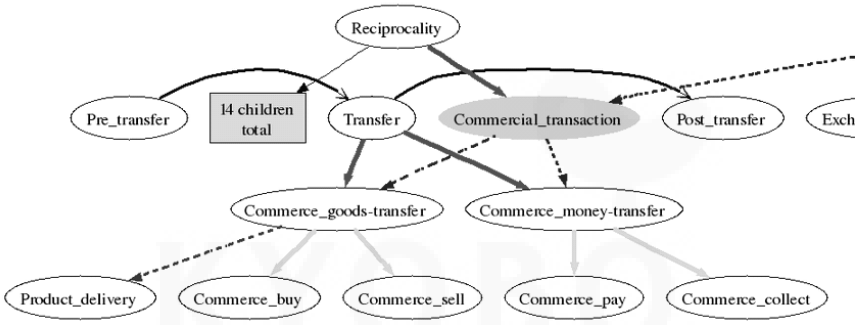


그림 22 FrameGrapher 예시

https://framenet.icsi.berkeley.edu/fndrupal/FrameGrapher(검색일: 2013.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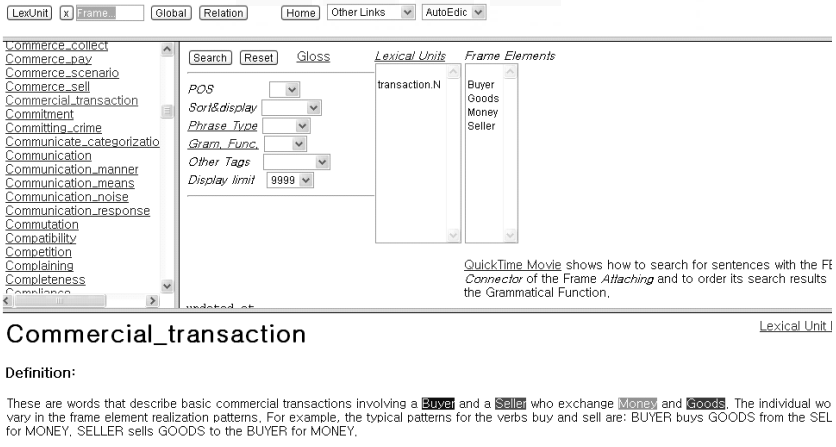


그림 23 FrameSQL 예시

https://framenet2.icsi.berkeley.edu/frameSQL/fn2_15/notes(검색일: 2013. 6. 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과정으로 현재(2013년 6월 1일 현재), 1,164개의 프레임의 정의, 12,714개 단어의 LU(Lexical Unit)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져 있다.

Ⅲ. 프레임의 다국어 적용에의 한계

상술하였지만, 프레임넷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틀의미론(frame semantics)은 인간의 언어와 경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백과사전적 지식(encyclopedic knowledge)을 중시하는 경험적 의미론(empirical semantics)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임넷 프로젝트가 기본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 및 영국 영어의 코퍼스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영어 문화권의 틀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는 프레임넷 프로젝트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구조, 즉 프레임 자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서 본래 영어 문화권의 프레임을 타문화권의 언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방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중시하는 틀의미론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단일 프레임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일본어의 경우 케이오 대학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어 프레임넷 프로젝트(https://http://jfn.st.hc.keio.ac.jp/)가 다음 표에서와 같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표 1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2013년 6월 1일 현재)

	FrameNet	CFN	JFN
Frames	1,164	304	37
Lexical Units	12,714	3,151	10

특히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식문화와 밀접히 관련한 Ingestion 프레임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식음자(Ingestor)의 음식물(Ingestibles)의 섭취'라는 단순한 프레임의 정의가 이와 관련한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표 2 Commerce_scenario 프레임과 Ingestion 프레임의 비교

	Commerce_scenario FM	Ingestion FM
definition	Commerce is a situation in which a Buyer and a Seller have agreed upon an exchange of Money and Goods (possibly after a negotiation), and then perform the exchange, optionally carrying it out with various kinds of direct payment or financing or the giving of ...<omitted>... In some cases, however, the process may be initiated by the Buyer indicating to a possible Seller that they would like to make an exchange. BUYER beware.	An Ingestor consumes food or drink (Ingestibles), which entails putting the Ingestibles in the mouth for delivery to the digestive system. This may include the use of an Instrument. Sentences that describe the provision of food to others are NOT included in this frame.
Lexical Unit	commerce.n, goods.n, merchandise.n, price.n, supply side.n, trafficker.n	breakfast.v, consume.v, devour.v, dine.v, down.v, drink.v, eat.v, feast.v, feed.v, gobble.v, gulp.n, gulp.v, guzzle.v, have.v, imbibe.v, ingest.v, lap.v, lunch.v, munch.v, nibble.v, nosh.v, nurse.v, put away.v, put back.v, quaff.v, sip.n, sip.v, slurp.n, slurp.v, snack.v, sup.v, swig.n, swig.v, swill.v, tuck.v
core Lexical Element	Buyer Goods Money Seller	Ingestibles Ingestor
non-core Lexical Element	Manner Means Purpose Rate Unit	Degree Duration Instrument Manner Means Place Purpose Source Time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Ingestion 프레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사실은 <표 2>에서 어느 문화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문화 보편성을 가진 상거래 프레임의 정의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Ⅳ. 문화이미지프레임

1980년대 이후 언어학의 세계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언어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인지언어학적 접근법('the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cf. Ungerer & Schmid, 1996)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틀의미론의 프레임(frame)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인지언어학의 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scene'(fillmore, 1975, 1977), 'script'(Tannen & Wallat, 1993), 'schema'(Schank & Abelson, 1977), 'scenario'(Sanford & Garrod, 1977) 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각국 특유의 문화요소까지 포함하고, 기존의 텍스트 언어가 아닌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식 체계('knowledge structure')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화 이미지 프레임(cultural image frame)'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영어 기반의 틀의미론의 단일 프레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4.1.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2011(이・한)에서는 플리커(http://www.flickr.com), 위키사전(http://en.wiktionary.org) 등 웹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반자동 이미지 검색엔진의 필요성을 논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일본어교육을 위한 메타검색엔진을 구상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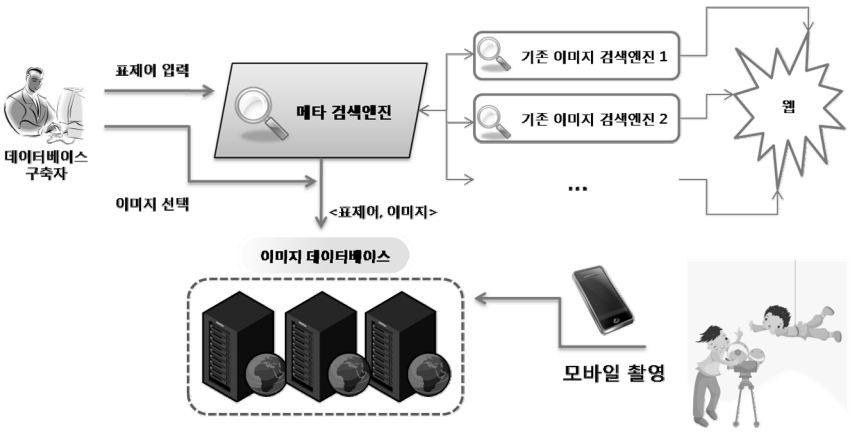


그림 24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현재 이를 통해 얻어지는 웹 이미지와 부가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구글(http://www.google.com)이 제공하는 피카사(http://picasaweb.google.com) 공간에 저장되어져 데이터 수정・보완・관리가 매우 용이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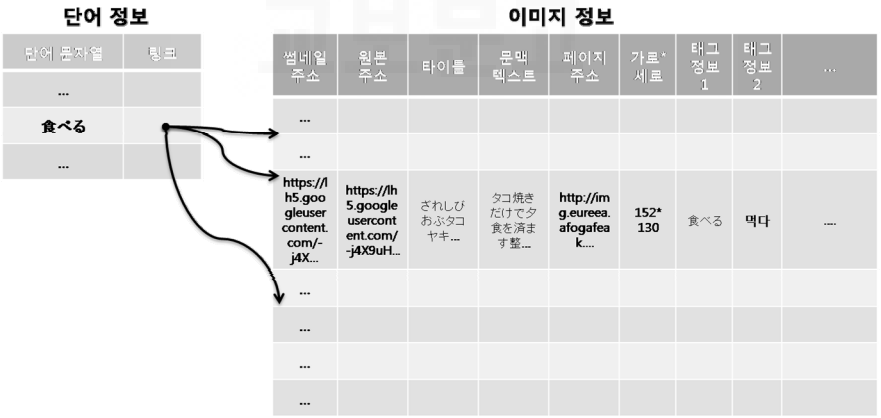


그림 25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食べる'의 예)

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는 메타 검색엔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구현한 이미지가 1만 1천여 개(2013년 6월 1일 현재), 여기에 현지에서 직접 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집한 이미지가 3천여 개로 구축되어져 있다. 물론 현재에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들 이미지 중에는 이미 한국, 일본 등 각국의 특유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4.2. Ingestion 동사의 문화이미지프레임

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적인 일본어의 Ingestion 동사의 하나인 '食べる'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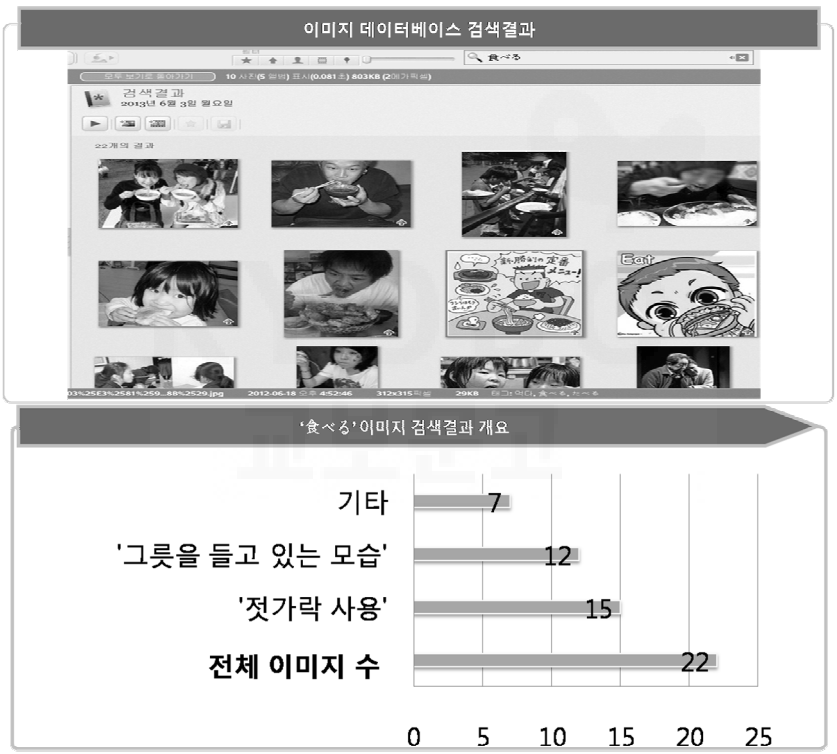


그림 26 '食べる' 검색결과 분석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食べる'의 이미지 검색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젓가락의 사용'(전 22개의 이미지 중 15개, 68%)과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모습'(전 22개의 이미지 중 12개, 55%)이다. 이는 현대일본어에 있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도 일찍이 포르투칼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가 이미 수 백 년 전에 발견한 다음의 일본인의 식문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 われわれはすべてのものを手をつかって食べる。日本人は男も女も、子供の頃から日本の棒を用いて食べる。※ヨーロッパでフォークを使う慣習は17世紀から。それまでは手づかみで食べていた。[5]

17세기부터 포크의 사용이 시작되었지만 그전까지는 직접 손으로 음식을 섭취한 서구의 식문화 습관에 근거하면 Ingestion 프레임의 어휘 구성요소(LE) 중 도구(instrument) 및 식사 방식(manner)은 임의 어휘 구성요소(non-core LE)가 되지만, 일본어에 있어서는 이들은 모두 필수 어휘 구성요소(core LE)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대비되는 우리의 식문화 습관, 즉 수저의 사용(특히 숟가락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릇을 손에 들고 식사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과 견주어 보면 일본인의 '심지어 국 등의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조차도 한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은 매우 특징적인 일본의 전형적인 식문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언어 공동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식문화 습관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인간의 경험으로 자리 잡혀 쉽게 바뀌지 않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을 둘러싼 경험적 요소를 중시하는 틀의미론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어휘 의미기술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있어서 기존 텍스트 언어 기반의 단일 프레임의 한계가 일본어 프레임넷(JPN) 등 프레임넷의 다국어 확장으로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각 문화권의 특유 문화 요소를 포함하여 기존 프레임넷의 단일 텍스트 언어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본고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을 사용하여 각 문화권의 Ingestion 동사의 프레임을 시각적으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ルイス・フロイス(岡田章雄訳注) (1991)『ヨーロッパ文化と日本文化』, 岩波文庫, p. 9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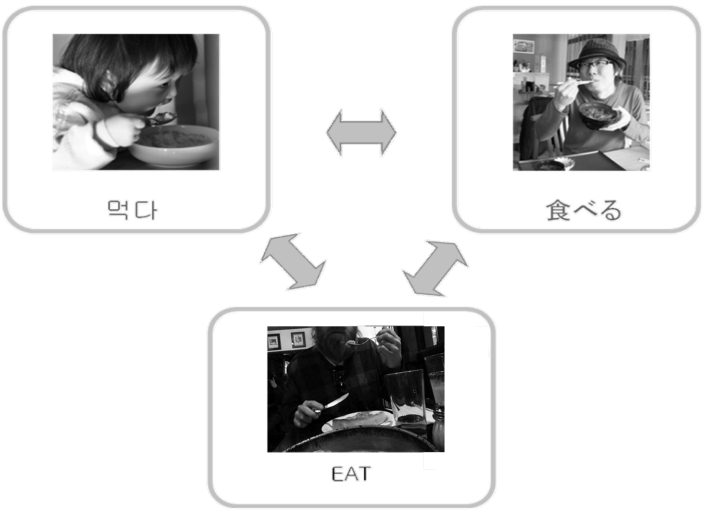


그림 27 각국 Ingestion 동사의 문화이미지프레임 비교

표 4. 각 문화권의 'Ingestion 문화이미지프레임' 어휘구성요소(LE) 비교

	'eat'	'食べる'	'먹다'
core LE	Ingestibles Ingestor	Ingestibles Ingestor **Instrument** **('chopstick')** **Manner** **('bowl on one hand')**	Ingestibles Ingestor **Instrument** **('spoon')** **Manner** **('bowl on table')**
non-core LE	Degree Duration Instrument Manner Means Place Purpose Source Time	Degree Duration Means Place Purpose Source Time	Degree Duration Means Place Purpose Source Time

<표 4>의 각 문화권의 어휘구성요소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고의 'Ingestion 문화이미지프레임'에 있어서 Ingestibles(음식물), Ingestor(식음자)만을 필수 어휘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서구의 영어 기반 프레임에 대하여, 일본어와 한국어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구(instrument) 및 식사 방식(manner)을 필수 어휘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구(instrument) 및 식사 방식(manner)의 구체적인 구현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젓가락'을 도구(instrument)로, '그릇을 손에 드는' 식사 방식(manner)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에 있어서는 '숟가락'을 도구(instrument), '테이블에 놓고 식사하는' 방식(manner)을 각각 취하고 있는 것이다.

Ⅴ. 마치며

틀의미론(frame semantics)이 인간의 경험, 즉 인간을 둘러싼 백과사전적 지식과 언어와의 관계 중시하는 경험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틀의미론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고 있는 프레임넷(FrameNet) 프로젝트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프레임의 정의, 어휘구성요소(LE) 선정 등에 있어서 각국 언어의 다양한 문화적 변수가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이·한(2011)의 메타검색엔진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어의 Ingestion 프레임 동사의 특징적인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였다. 이를 타 문화권의 문화 이미지 프레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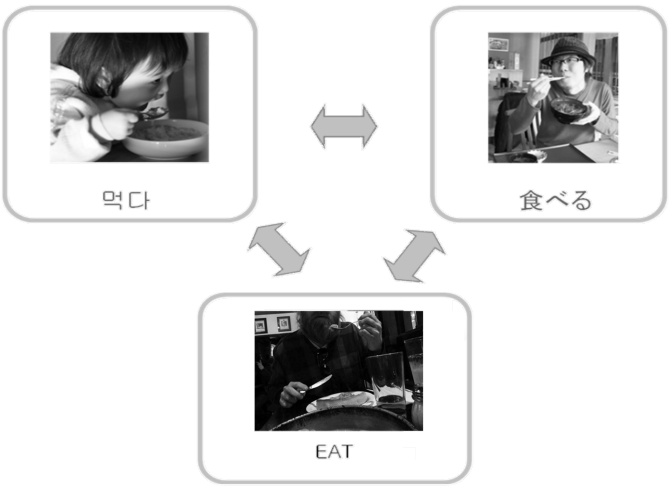


그림 28 각국 Ingestion 동사의 문화이미지프레임 비교(재게)

본고의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한 다중언어 '문화 이미지 프레임'의 특정 노력은 향후 영어 텍스트 기반의 단일 프레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남경완・이동혁(2004)「틀의미론으로 분석한 '사다'와 '팔다'의 의미 분절 양상」『언어』 29-1, 한국언어학회, pp.1-24.

이준서・한경수(2011) 「일본어교육용 이미지 검색엔진 구축」『일본어교육연구』20, 한국일어교육학회, pp. 159-169.

ルイス・フロイス(岡田章雄訳注) (1991)『ヨーロッパ文化と日本文化』, 岩波文庫, p. 92.

Fillmore C(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123-131.

Fillmore C(1977) Scenes-and-frames semantics, Linguistic Structures Processing, North-Holland, Amsterdam, pp. 55 - 81.

Fillmore C(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p.111-138.

Fillmore C, Atkins B(1992) Toward a frame-based lexicon: The semantics of RISK and its neighbors. In Lehrer A, Kittay E (eds), Frame, fields, and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ontrasts: New essays in semantic and lexical organization. Hillsdale, Erlbaum, pp. 75-102.

Fillmore C, Atkins B(2000) Describing Polysemy: The Case of 'Crawl.' In Ravin Y, Laecock C (eds), Polyse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1-110.

Fillmore C, Charles Wooters, Collin F. Baker(2001) Building a Large Lexical Databank Which Provides Deep Semantics, Proceedings of the Pacific Asian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p. 3-25.

Petruck M(1996) Frame Semantics. In Östman J-O, Blommaert J, Bulcaen C (eds), Handbook of Pragmatics.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s, pp. 1-13.

Sanford, Anthony, Garrod, Simon(1981) *Understanding Written Language*, Wiley, Chichester.

Schank, Roger C., Abelson, Robert(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Tannen, Deborah, Wallat, Cynthia(1993) Interactive frames and knowledge schemas in interaction: examples from a medical examination/interview, Framing in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57 - 76.

Ungerer, Friedrich, Schmid, Hans-Jorg(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gman, London.

❖ 투고일 : 2013.06.17
❖ 심사완료일 : 2013.08.15
❖ 게재확정일 : 2013.08.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